

주일 예배 11시

2017년 10월 8일 (첫째 주일)

*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

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

예배로의 부름

사회: 김동진 형제

*찬송 그 큰 일을 행하신(615장) 다 함께

*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

*교독문 56번 다 함께

*찬송 주의 피로 이룬 샘물(266장) 다 함께

기도 장연재 형제

찬송 김성진 집사 가족

말씀 고명환 목사

-예수 그리스도: 4. 좋은 목자(요한복음 10장 11-16절)

*찬송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(531장) 다 함께

교회소식 담당자

기도 담당자

교회소식

-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. 꼭 참여해 주세요.

- 금주 읽을 성경:시편 146-2편, 요한복음

- 기도해 주세요- 1.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
- 2.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
- 3.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
- 4.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

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, 수요일 오후 7시, 월-금 오전 5시20분, 토요일 오전 6시

순례자의 목상

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의 의미를 놓아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백성의 의미는 다 상실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.

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아왔든 아니면 바벨론에서 나아왔든, 그래서 짓눌리고 어려움 있는 곳에서 나아왔든 아니면 평화롭고 안정감이 있는 곳에서 참된 의미를 추구하며 나아왔든, 그 결국 귀중한 것은 성전됨에 우리의 의미를 두어야만 옳을 줄 압니다.

성전! 그 점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요!

하나님의 백성이 먼 열국에 흩어져 있더라도 절기를 좇아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성전 때문이었습니다.

성전!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묶어 불만한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.

자기의 일생 속에 보잘 것 없는 베들레헴의 양치기로서 삶을 꾸려갔었던 그 초라한 다윗에게 세상에서의 영광은 무엇일까요?

골리앗을 이긴 것입니까?

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까?

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입니까?

아니면 그가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나라를 넓히고, 그 모든 나라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까?

결단코 아닙니다.

그것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.

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과정은 다 필요합니다.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, 그 길이 다윗의 영혼이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거듭거듭 각성시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.

주님 떠나면 그는 이상한 사람 되고야 맙니다. 그러나 그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속하면 주님 모신 평온함이 있고, 강함이 있고, 경건됨이 있고,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. 이곳에 이김이 있습니다.

사랑하므로 병이 난 자

강환희

겉 사람과 속 사람

배현화(고2)

“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

예수를 바라보자!” (히브리서 12장 2절)

“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
겉 사람을 중요시하는 세상
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
세상에게 맞춰가는 나의 발걸음
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
점차 새로워지고 싶은 겉사람
고 하려무나”(아5:8).
점차 힘을 잃어가는 속사람

주님을 사랑하므로 병이 날 만큼
아가서 신부의 마음엔 오직
주님뿐이었음은
얼마나 부러운 일인가요?

겉을 치장하느라 사용한 시간을
주님 앞에 더 앞드리는 시간으로
겉을 치장하느라 가진 관심을
주님을 향한 뜨거운 관심으로

오, 주님!
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소서.
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
내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.

나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
순종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
세상이 낄 틈 없는 속사람이
되고 싶어요.

사랑하므로 병이 난 자!
그가 가장 행복하고
복된 자인 것을 압니다.

오, 주님!
나로써는 할 수 없습니다.
이 못된 자 부수고 뺏으셔서
당신의 십자가의 형틀에서
새롭게 형성되어
주님을 사랑하므로 병이 난
축복된 자 만드소서.



PALOUSE KOREAN CHURCH



2017년 10월 8일(41주) 31권-41호

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
Pullman, WA 99163 Phone 978-807-4092

Website: pullmanpkc.org